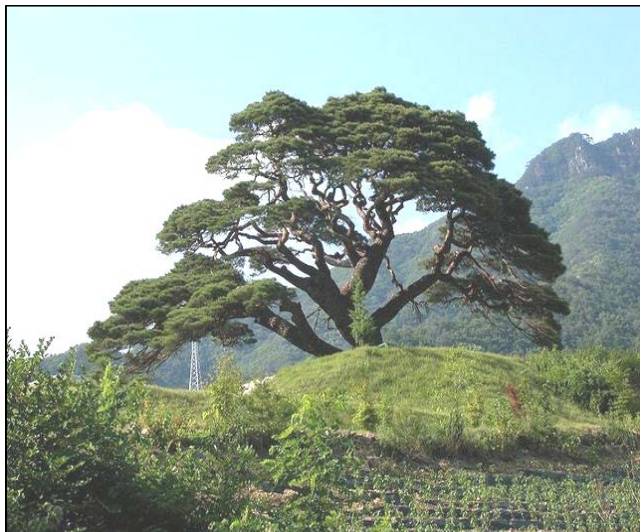


## 소나무

서정수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애국가 2절의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는 노랫말처럼 반만년의 역사 속에 거센 외세의 풍설에도 견딘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이 바로 우리 민족혼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소나무 같은 기개(氣概)라 할 수 있다.

소나무는 우리 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나무를 일러 영수(靈樹), 신수(神樹) 또는 상서목(祥瑞木)으로 숭앙하여 금기불제(禁



忌祓除)의 방법으로 써 왔는데 그 예를 민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출산하면 부정한 잡인의 출입을 막고 사귀(邪鬼)의 침입을 막아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새끼줄을 꼬아 대문에 금줄을 치고 솔잎을 꽂는다. 이때 아들이면 솟과 고추를 더해 꽂고, 딸이면 솟만 더 꽂는다.

안택(安宅)기도 때도 원새끼줄의 금줄을 대문에 치고 길 양쪽에 황토를 깔며 소나무 가지를 세워서 부정을 막았으며, 동신(洞神)에게 지내는 동제(洞祭) 때나 산신제(山神祭)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경기도 수원지방에서는 소나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금줄을 치고 생솔잎과 현 짚신을 꽂는 민속이 있었다.

원새끼줄의 내력은 귀신이 원새끼줄을 무서워한다는 고사(故事)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漢)나라 때 동방삭(東方朔)이 신술을 쓴다 하여 염라대왕이 세 마리의 귀신을 시켜 동방삭을 잡아 오게 했는데, 귀신들이 동방삭을 만나 “신술을 쓰는 네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은즉 “팥떡과 동치미”라고 대답했고, 동방삭이 귀신더러 “네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나”고 하니 “원새끼줄과 돈나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방삭은 원새끼줄을 허리에 동이고 돈나무 숲에 누워 있었으므로 귀신이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귀신은 동방삭이 무서워한다던 팥떡과 동치미를 그에게 던졌는데 귀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동방삭은 팥떡과 동치미를 먹어치우니 귀신이 놀라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원새끼줄은 축귀(逐鬼)의 효험이 있다는 민간 신앙이 생긴 것이다.

일반적 민속으로는 벽사(辟邪)를 위해 소나무 가지를 문 앞에 세우거나, 지붕 위에 둔다든가, 처마에 꽂아 둔다든가 또는 솔잎을 문안에 뿌려 두는 등의 민속이 있었다. 설날에 대문 앞에 소나무를 세우는 유래는 [사기(史記)]에 이르기를 《송백(松柏)은 백목지장(百木之長)이라 문려(門閭)를 지키게 한다.》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만주에서는 역병(疫病)을 추방하는 주술로서 설날에 문에 소나무를 세우는 유풍(遺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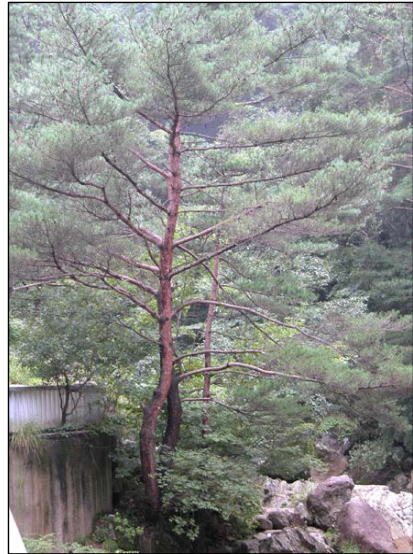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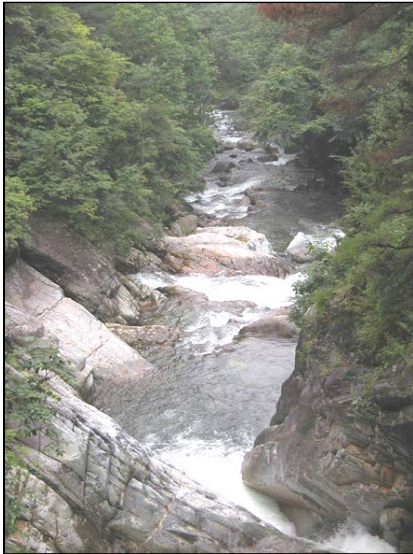
일본에서도 설날에 가도마쓰(門松)라 하여 소나무와 대나무를 대문 앞에

세우는데, 사기(邪氣)를 쫓고 부정한 것을 피한다는 뜻이라 한다. 이 소나무는 1개월 후에 치우게 되는데 문송(門松)이 서 있는 정초에 초상이 나서 상여가 지나가게 되면 그 길목 문송에다 거적을 덮어 씌워서 부정을 막는 풍습까지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설날 아침에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쫓는 풍속이 있는데, 폭죽을 터트린 후 소나무 가지를 꺾으러 가는데 남자는 7가지, 여자는 2가지를 꺾어온다. 이 소나무는 약이 된다고 믿었는데, 이는 신수(神樹)에 의탁하여 1년의 안위를 기원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나라 옛날 결혼식 때 초래청의 상 위에 생닭 두 마리와 함께 소나무와 대나무를 병에 꽂아서 양쪽에 놓았다. 소나무는 잡신을 물리치고 장수를 비는 뜻이며, 대나무는 맹아력이 왕성하므로 자손 번성을 비는 뜻에서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예식의 현대화로 사라져 가는 민속의 하나가 되었다.

기제사 때 모사(茅砂)라 하여 모래에 생솔잎을 한 묶음 묶어 꽂아 조상의 혼령(魂靈)을 맞이하는데, 이 역시 청정(淸淨)을 의미한다.



10월 상순에 행하는 성주받이 굿 때는 소나무 가지로 성주(가택신)의 신대(神竿)로 삼아 강신시킨다(일반적으로 신대는 대나무로 함).

또, 동구 밖이나 고개 마루턱에 세워진 마을 수호신인 장승(天下大將軍;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地下女將軍)도 소나무로 만든다. 장승을 만들기 전산에서 벌채할 때도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 쓸 나무에 금줄을 치고 제사를 지낸 후에 벌목하여 하산시켰다고 한다. 소나무는 그 자체가 신수(神樹)이기에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노거송(老巨松)에 자식을 얻고자 비는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민속은 소나무신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생겨난 민속이다.

농신제(農神祭)의 한로 모심기를 끝낸 뒤 잘 자라 달라는 뜻으로 세 갈래된(三枝) 소나무 가지 위에 떡을 놓거나 솔가지에 작은 떡을 췌 떡꼬치를 놓는 가운데나 논둑에 세우기도 했다. 경기 지방에서는 소나무 세 가지를 묶어 세 가닥으로 한 후 그 위에 채반을 얹고 떡(송편)을 얹어 바치는 방법도 있었다. 이것은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소나무의 유감주술적(類感呪術的)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민속이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이란 책에는 소나무 순이 많이 죽으면 그 해에는 사람이 많이 죽는다 하여 두려워했으며, 꿈에 소나무가 마르면 병이 생긴다고 근심했다. 반대로 집안에 소나무가 자라면 길조(吉兆)라 하여 만사가 형통하다고 기뻐했고, 지붕에 소나무가 나면 큰 인물이 난다 하여 좋아했다. 관직에 있는 자는 벼슬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소나무에 얽힌 설화 중 솔거(率居) 설화를 빼놓을 수 없다. 신라 진흥왕 때 솔거가 그린 황룡사의 벽화 노송도가 어찌나 잘 그렸던지 새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으려다 그림에 부딪혀 떨어질 정도여서 그 그림을 신화(神畵)라 불렀다고 한다. 솔거는 단군이 신필을 내렸다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소나무가 수난을 당한 역사는 고려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고려 왕에게 전투선박(戰船) 3,000여 척을 건조할 것을 요청하여 고려는 변산반도(부산군)와 나주, 장흥지방의 소나무를 벌채하여 사용했다.



한편, 조선왕조 창건 후 태조 26년에는 충청도의 관원이 장계를 올려 가로되 “병선건조로 산이 황폐하니 육림, 산화방지, 도벌금지(育林 山火防止 盜伐禁止) 등을 지방수령이 지도, 감독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후 송목양성병선수호조건(松木養盛兵船守護條件)이란 것이 생겼는데, 그 내용은 1주의 도벌에도 곤장 100대와 산지기에게 곤장 80대, 관리에게 곤장 40대를 치는 연대 처벌 규정이었고, 10주 이상의 도벌에는 곤장 100대를 친 후 전 가족을 국경 근처로 추방하고, 산지기는 곤장 100대를 친 후 군인으로 보내며, 관리는 곤장 100대에 10년 이내의 파직으로 처벌하는 엄한 규정이었다. 이렇게 하여 가꾼 울창한 송림은 그 후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이 만든 전투선박들의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조 말엽에는 금표(禁標)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산에 짐승을 놓아기르는 자는 곤장 80대, 재(災)를 버린 자는 곤장 100대를 때린다고 경고문이 새겨져 있다. 타다 남은 재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애림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가 부패했던 시기라 도벌을 금한 소나무를 벌목하고 곤장 대신에 돈을 바치는 제도가 생겨 이 돈을 송속(松贖)이라 했다.

일본은 강제합병 이후 여러 구실로 벌채를 강행하여 산을 좀먹더니 급기야는 2차대전 막바지에서 최후 발악으로 송근유(松根油) 채취로 한국인까지 산으로 내몰아 소나무를 죽게 하여 산의 옷을 벗겨 내었던 악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200주의 송근유(松根油)는 비행기 1대를 1시간 뜨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강행했던 것이다.

소나무는 세계에 약 100종(원예종 제외)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7종이 있다. 대나무가 남반구에 분포한 것과 대조적으로 소나무는 북반구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땅 속에 묻혀 있던 화분(花粉)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000년 전에는 활엽수림이었는데, 약 3,000년 전부터 소나무가 증가되고, 2,000년 전부터 소나무 숲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수렵사회가 농경사회로 바뀌면서 화전을 일구고 고구려 때부터 온돌이 생기면서 땀감으로 활엽수들이 감소되자 땅이 메말라지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가 번성하여 송림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소나무가 있는 곳은 지력이 척박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지표목(指標木)인 셈이다.

소나무의 학명인 *Pinus*는 Pin, 즉 켈트어의 산(山)이라는 뜻으로 산에서 나는 나무를 뜻하며, 주로 고대 그리스 신전의 건축재였다고 한다.

소나무를 흔히 “솔”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뜻은 상(上), 고(高), 으뜸(元)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소나무가 모든 나무의 으뜸임을 나타낸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기를 점칠 때 솔방울을 이용한다. 실내에 달아 놓은 솔방울이 젖어지면 춥고 비가 오며, 벌어지면 덥고 건조한 기후가 될 징조라고 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국 어느 곳에서도 잘 자란다. 소나무는 앞에서 말한 수난 외에도 그 용재가 훌륭하고 수지가 있어 내구성도 강하여 건축재, 선박재, 교량재, 가구재, 간재, 소도구(절구, 나막신, 농기구, 악기, 소 물바가지) 같은 도구에 이르기까지 쓰임새가 많다. 심지어 화력이 좋아 불에 잘 타므로 장작(신탄재)으로서도 이용도가 커 사람들이 각기 벌채를 많이 하였



고 그래서 지금은 노거수가 흔치 않다.

남아 있는 노송들은 대개가 유서 깊은 전설이나 고사가 얽혀 있어서 그 수명이 보전되어 숭앙받고 있다. 그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속리산 정이품(正二品) 소나무는 일명 《연결이소나무》라고도 하는데, 수령이 800년이 넘는다. 조선조의 세조대왕이 난치의 종양으로 고생하던 중 기도로 효험을 보게 되자 약수로 유명한 속리산 범주사의 복천암(福泉庵)을 찾아가던 길에 이 소나무 밑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소나무 가지에 임금이 탄 가마가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이를 본 임금이 “연결린다” 라고 꾸짖으니 소나무 가지가 번쩍 쳐들려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임금은 기특히 여겨 친히 옥관자를 가지에 걸어 주고 후일에 정이품의 벼슬을 내렸다는 고사이다. 이 나무는 아들을 얻게 한다는 민속도 있어서 칠거지악인 아들 없는 여인들이 자식을 얻고자 기도드리는데 행열이 끊이지 않는 나무였다고 한다.

또, 노인들은 이 나무를 안고 돌면 세상을 떠날 때 쉽게 임종을 맞는다는 전설이 있어 노인들이 아릅드리 소나무 줄기를 안고 도는 애처로운 모습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수원시 북문 밖의 노송지대를 지지대고개라고도 하는데, 조선조 정조(正祖) 임금의 비명에 간 아버지 사도세자를 수원에 이장해 모시고 가는 길목인 이 고개에 소나무 500주를 심게 했다는 수원시사의 기록이 있는데, 보호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한다. 땀감이 부족한 북문 밖 사람들이 자고 나면 소나무를 베어 가고 밑둥만 남게 되자 정조 임금은 폐단을 막고자 나뭇가지에 엽전을 매달아서 정 나무를 베어 갈 형편이라면 나무를 베지 말고 이 엽전으로 땀감을 사라는 뜻이었다 한다. 국왕의 극진한 배려에 백성들은 감히 나무를 베지 못했다 한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소나무 숲에 송충이 크게 창궐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때 정조가 아버지 능에 참배하러 이곳을 지나다 크게 놀라 송충을 잡아 입에 넣고 씹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까치 까마귀떼가 몰려와 송충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려 더 큰 피해를 면했다는 고사도 전해진다.

정조는 능을 향해 갈 때는 이 고개에서 어찌 이리 느리냐고 했고, 궁으로 돌아갈 때는 천천히 가자고 해 못내 능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해서 지지대(遲遲待)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정조 임금의 효심을 말해주는 일화다.

이 밖에도 이태조가 활 쏘는 연습을 할 때 활을 걸었던 나무라 하여 패궁송(掛弓松)이라 부르는 소나무도 있고 숙종대왕이 그 나무 밑에서 쉬면서 완상했다 하여 용송(龍松)이라 하는 소나무도 있다. 그 밖에 대개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앙받아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또, 매미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고려 때 강감찬 장군이 부적을 써서 소나무에 붙였더니 그 후로는 그곳에서 매미가 울지 않았다는 고사나 일화 등 소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

중국에서도 벼슬한 소나무가 있는데, 시황제(始皇帝)가 삼천 궁녀를 거느리고 태산에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나게 되어 근처의 큰 소나무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치하하여 5대부의 벼슬을 주었다는 사기의 기록도 있다.

소나무는 주(周)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묘지의 나무로도 사용했는데, 이는





하상(下床)식물이 생기지 않으므로 뱀이나 곤충이 없기 때문이었다. 조상송배의 유교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조 때는 묘지목으로 더욱 즐겨 쓰였음을 지금도 명문가의 묘역에 송림이 둘러져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실생활에 얽힌 민속으로는 추석날에 송편을 찌 때 솔잎을 이용한다. 송편은 솔잎과 떡을 함께 찌는데 이것은 쉽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예지의 민속은 솔잎 속의 오존은 방부, 살균, 표백 등의 작용을 하고 있음을 현대 과학은 밝히고 있다. 불쏘시개로 쓰이던 관솔이나 플래시 역할을 하던 관솔햇불은 송명(松明)이라 했고, 솔뿌리를 태운 그을음은 떡을 만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해주묵(海州墨)은 최상급품이었다.

송진은 밀처럼 양초 대신 쓰였다. 지금은 잊혀진 것 중의 하나인 솔뿌리의 껍질을 벗긴 속심은 매우 질기므로 쪼개어서 나무 그릇을 꿰매거나 체를 메우는데 쓰였으며 물건을 동이는 데도 쓰였다. 잔솔뿌리로는 솔을 묶어 배를 땔 때 풀솔로도 사용하고 가마솔을 씻는 솔로도 사용했다.

신경통이나 풍증 치료를 위해 한증막에 솔잎을 깔고 한증했던 민간요법은 아직도 전승되고 있다.



독일이나 스웨덴에서도 솔잎의 섬유로 실을 뽑아 짠 직물을 송엽포(松葉布)라 하여 의복을 만들어 류마티스나 폐결핵 환자에게 입히는 의료풍속도 있었다고 한다.

청솔잎을 삶은 물에 동상 입은 손, 발을 담그고 녹이면 동상이 나올 뿐 아니라 재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매일 청솔잎을 2~3개 씹어서 그 즙을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도 한다. 솔잎을 삶은 물에다 쭈욱 다린 송엽죽(松葉粥)은 정력증진의 효과가 있다. 또한, 송엽주, 송화주, 송순주 등은 약술로 지금도 애용되는 민속술이다.

고급민속식품으로는 송화가루를 꿀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 내는 송화다식(松花茶食), 송화가루를 꿀에 탄 송화밀수(松花蜜水), 송갈(松葛, 잣)로 만든 잣강정, 잣단자, 잣박산(실백산자), 잣기름, 잣소금(잣가루), 잣엿, 잣즙 등은 정력증진의 선약(仙藥)으로도 음식의 영역을 능가하고 있다. 또, 수정과나 식혜, 유자차 등에 띄우는 실백(잣)의 맛은 우리 전통음식의 멋이다. 잣의 용도가 다양한 것은 우리의 특산식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잣불이라 하여 음력 정월 14일 밤에 간 잣 12개를 각각 바늘로 꿰어



12달에 벌려 놓고 불을 켜서 불이 밝은 달은 신수가 좋고 어두운 달은 신수가 나쁘다고 점치는 민속놀이도 있었다.

솔잎은 장기간 생식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지며 머리털이 나고 추위를 모르며 배고픈 것도 모르는 신선의 음식이라 했지만 소나무는 옛날부터 우리의 귀중한 구황식품(救荒食品)으로도 큰 몫을 했다. 멀리는 신라 때부터 송기를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 가깝게는 흉년에 농민들이 허기를 메우려 소나무 껍질을 송기라 하여 벗겨다 짓찧어서 곡물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었으며, 생솔잎을 썬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곡물류의 가루와 섞어 찌든가 삶든가 기름에 지진 솔잎떡은 널리 이용된 구황식품이었다. 이때 느릅나무, 계피가루를 섞거나 우린 물로 반죽하여 변비를 예방한 예지도 아울러 있을 수 없는 민속이다.

우리나라에는 중국 원산인 백송이 몇 그루 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올 때 갖다 심었다는 이 나무들은 귀한 만큼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이 소나무는 줄기가 희어서 백송(白松)이라 하는데, 한밤중에 부녀자들이 백송 밑에 와서 두 손으로 백송 밑둥을 문지르고 그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기를 49회하면 얼굴의 기미가 사라지고 희여진다고 전해온 유감주술적 민속이 있어 옛적에는 백송나무 밑에 예뻐지기를 원하는 아녀자들로 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또, 백송 잎을 달여 먹으면 속살까지 희여진다고 하는 속신 때문에 백송잎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막고자 궁지기들이 야번을 서기까지 했다 한다. 그래서 예뻐지기를 기도하는 나무라 하여 기려목(祈麗木)으로 불리기도 했다.

소나무 잎은 2가닥이고 잣나무는 5가닥이며 백송은 3가닥이다. 2는 딸을 뜻하는 음수이고, 3은 아들을 뜻하는 양수라 하여 아이를 뱀 여인들이 백송 잎을 따다가 속옷 끈에 매달거나 남자머리에 꽂고 다니면 뱃속의 태아가 아들로 바뀐다는 미신을 믿은 우리의 남성우위사상의 여인 수난기의 단면을 말해주는 백송에 얽힌 민속도 있었다. 송화가루의 연한 노랑빛은 독특한데 인색한 사람의 별명을 송화색이라 했었다. 그것이 변하여 오늘날에는 인색한 사람을 노랭이라 하는 것은 소나무가 받은 가장 달갑지 않은 이름이다.